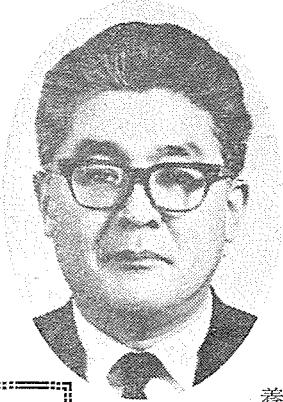


應用研究에 重點돌터



韓國科學院院長에 趙淳卓(49)박사가 就任했다.

韓國科學院 理事會의 選任에 따라 第3代院長으로 20日

就任한 趙박사는 20個 星霜을 學界에 몸담아온 碩

學. 開院 8個月로 접어든 우리나라 唯一의 英

才養成機關인 韓國科學院을 맡게된 趙박사의 心中

은 어떤가—. 日淺한 歷史를 가진 韓國科學院의 育成

方案을 趙院長으로부터 들어본다. <편집부>

『國內産業의 急速한 發展을 고려해서 앞날에 必要로하는 人材를 養成해 나가도록 努力하겠습니다』

趙院長은 急tempo로 發展해가고있는 産業界의 現實을 지적 최소한 5年 또 는 10年의 앞을 내다보면서 社會가 要求하는 適格人材를 養成하므로써 產學協同에 奇與할 수 있다는것.

『教授들과 意見을 교환 國家經濟를 展望하면서 항상 앞날에 對備해서 教育方向을 設定할 計劃이며 좀더 幅있는 운영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趙院長은 科學院의 문을 활짝열어 國內 科學技術系와 손을 굳게잡고 나 가므로써 發展이 있다고 強調했다.

『公開의인 批判을 두려워 해서는 않됩니다. 폐쇄는 침체를 몰고오고 침체는 滅亡을 自招합니다』

진지하게 앞으로의 運營方向을 力說하는 趙院長은 中心을 잃지않고 일해 가면서 周圍의 增高를 달게받아들여 科學院의 育成發展에 參與하겠다는것.

『우리나라는 基礎研究와 應用研究, 開發研究등이 확실하게 區別돼 있지 않해요, 또 開發研究에 치중하는 느낌이고 應用은 불과 10내지 20%에 불 과합니다. 科學院은 70%를 應用研究에 注力할 계획입니다』

중은 課題들은 開發로 이끌예정이나 우선 應用에 重點을 두고 나머지를 基礎研究에 活用할 方針이라고 한다.

『教授와 學生과의 比率는 10對1이 理想的이며 學生들의 待遇는 先進國 과 같이 지극히 正常的인 것』이라고 主長한 趙院長은 「科學院을 國際水準 의 大學院으로 育成시킨후에 產學別 學生 TO의 增員도 考慮하겠다」고 말 해 產學協同體制는 계속 強化해 나갈것을 암시해 줬다.

趙院長은 또 附設研究所 또는 研究室設置에 깊은 關心을 보여주시기도 했 다. 『産業界와 보다 유기적인 關係를 맺고 일해나가기 위해서는 研究所나 研究室이 있어야 하겠어요, 앞으로 産業界人士들을 찾아뵙고 說得시켜 나 가겠습니다』

이 研究所設置에 따르는 經費는 産業界서 出損토록 하므로써 效率的인 運營이 될것이라고 내다봤다.

1947년에 서울大文理大와 49年 서울大學院을 나온 趙박사는 54년부터 母校에서 後輩養成에 專念.

그후 58년에는 渡美留學 「미시간」大學에서 理學博士學位를 얻었으며 64 年부터는 계속 西江大교수를 歷任했다.

趙박사가 그동안에 받은 굵직한 勳章과 賞은 3개. 60년에 綠條素星勳章 65년에 學術院賞 72년에 國民勳章冬栢章을받았다. 슬하에 2男3女를둔 多福 한 家長인 趙박사는 全南昇州産.

研究所設置도 極力 추진

趙淳卓院長 · 韓國科學院育成方案 밝혀

學究的環境을 造成

새로운 技術開發에 努力

趙 淳 卓
韓國科學院長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韓國科學院이 理工系大學院으로 設立된 까닭은 精緻한 理論과 實際的인 應用力을 兼備한 英才를 國家産業發展에 必要로하는 科學과 技術分野에서 養成하여 우리나라 産業發展에 獻身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間 初代院長 李相洙博士 2代院長 朴達祚博士, 教授, 職員 여러분의 獻身的인 努力으로 슬기어린 高曠산 기슭에 韓國科學院의 基礎이 確固히 構築되었고, 發展을 爲한 底力도 蓄積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科學院은 跳躍段階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때에 本人이 院長의 所任을 맡게되어 다시없는 榮光으로 생각하면서도 무거운 責任感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祖國의 近代化 作業은 工業立國의 旗幟아래, 國力培養에 盡力하여 60年代에는 그基礎를 튼튼히 디졌고 70年代에 重化學工業 建設에 突入하였으며, 80年代의 富強을 向하여 우리는 總和邁進하고 있습니다.

이 國家事業속에 韓國科學院의 存立座標가 있고 進行方向이 있고, 活動領域이 있습니다.

새로 啓發된 科學知識과 새로 革新된 技術이 오늘날 産業社會에 實用化되어 새로운 生産을 創生시키는 波及速度는 甚大하여, 生産技術의 平均壽命은 過去에 比할때, 지니질 程度로 短命임은 周知의 事實입니다.

또한 科學과 技術이 分離되어 零각되던 것도 옛이야기이고, 科學과 技術이 遊離되지 않고, 生産에 集體的으로 關與하고 있는 것이 現代科學技術의 特色일 것입니다. 이와같이 日進月步하는 現代科學技術의 革新潮流는 現代工業國家의 理工系大學院에서 教育和 研究에도 不斷한 革新을 招來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科學院의 教育和 研究도 革新의 물결을 外面에서는 안될 것이며, 能動的으로 適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開放體制속에서 살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生産品의 國際競爭強化는 우리經濟의 盛衰와 直結되어 있음을 直視하여야 합니다.

科學院에 賦與된 國家의 要望을 成就하고, 設立者이신 朴大統領閣下의 念願에 報答하는 길은 一次的으로 科學院을 하루 속히 國際水準의 理工系大學院으로 發展시키는 일이라고 本人은 確信하는바입니다.

따라서 水準 높은 講義와 嚴格한 學問的訓練은 當然한 일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새로운 科學知識의 創造와 技術의 開發도 重要합니다.

教授여러분! 그리고 學問的同伴者인 學生諸君!

自由롭게 思考하고 公開的인 批判을 두려워 하지 맙시다. 閉鎖는 沈滯를 몰고 오고 沈滯는 滅亡을 自招하기 때문입니다.

創意的인 思考의 所産인 研究業績이 우리나라 産業發展의 要素가 되고 나아가 國際學界의 注目을 集中시킬 것을 期待하여 마지 않습니다. 그러기 爲해서 科學院과 國內외의 學界와 國內産業界 사이에는 相補的인 協力關係가 展開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門을 활짝 열어 科學技術界의 우리同志들과 손을 굳게 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理想은 높고 現實은 刻薄합니다. 우리의 人力과 財力에는 스스로 限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國家가 必要로하는 科學技術, 그 모든것을 여기에서 다 할 수 없다는 것은 自明한 것입니다.

國內의 다른 科學技術者 養成機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에 맡기고, 그들하고 相補的으로 協力하는데서 우리科學院의 特色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學生여러분 여러분은 選拔된 者입니다. 여러분은 國民의期待를 저버릴 수 없는 指導者의 候補이기도 합니다. 國家와 民族에 創意와 精誠으로 奉仕하는 指導者像을 涵養하여야 합니다.

本人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데에 力點을 두고 科學院의 運營에 臨할것이오니 여러분의 協助를 當부하는바입니다.

- (1) 人和를 助成하고 能率을 增大하여 紀綱을 더욱 바로 잡도록 할 것이며,
- (2) 學究的環境을 造成하여 自由롭게 討論하고 公開的인 批判을 두려워 하지 않는 創意力의 啓發에 努力할 것이며,
- (3) 產, 官, 學의 相補的인 協力關係를 發展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서 本人은 韓國科學院이 그의 設立目的을 達成할 수 있도록 모든 精誠을 다 할 것입니다.